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무심코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무심코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무심코

완성된 이름

무심코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표기				
無心코				
무심코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5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무심코'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무심코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무심코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무심코 사전 표기 요약	—	—	—	—	●→	●→
無心코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무심코
19세기20세기현재
- 無心코
18세기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無心코, 무심코



무심코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무심코’는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무심코’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無心코’도 나타난다.

ㅈ 말의 구성과 어원

‘무심코’는 한자어 ‘無心’을 한글로 표기한 ‘무심’과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無心ㅎ-’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한 ‘無心ㅎ고’가 줄어든 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문헌 속의 무심코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無心코 용례 0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無心코

19세기 무심코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무심코

출처 1856 서유기 경판31장본 상:26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마당의 보리 두드리며 들의 기음미노라 사름이 주옥하여 저무든 천변만 너겨 무심코 셔셔 바라보더니.

역 현대어 풀이

마당의 보리 두드리며 들에서 김매느라 사람이 많아 각자 천변이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셔셔 바라보더니.

20세기 무심코, 無心코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무심코, 無心코

출처 1908 송뢰금 상:1 91

용례 02

66 문헌 용례

내역 무심이 보왓스니 무심코 난 일 무심코 말하게 나도 무심코 드름세.

역 현대어 풀이

내역을 무심히 보았으나 무심코 일어난 일 무심코 말하게. 나도 무심코 들음세.

출처 1920 동아일보 4월 2일 7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공교히 운전수가 무심코 끌고 나온 날이 판명되야.

역 현대어 풀이

공교롭게도 운전수가 무심코 끌고 나온 일이 판명되어.

출처 1922 개벽 제25호16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이 骸骨이 軍服을 입고 단추만 번쩍이며 잇는 것을 본즉 無心코 허리가 썰리어서.

현대어 풀이

이 해골이 군복을 입고 단추만 번쩍이며 잇는 것을 보니 무심코 허리가 떨어져서.

출처 1931 조선일보 5월 7일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러한 좌석에서 점잔타는 사람일수록 무심코 잘하는 말이였다.

현대어 풀이

이러한 좌석에서 점잔다는 사람일수록 무심코 잘하는 말이였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무심코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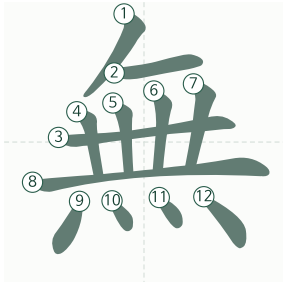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무심코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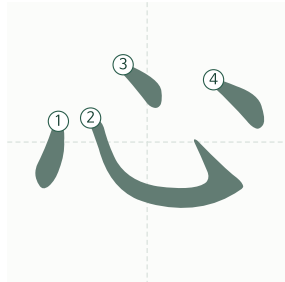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無 뜻·음 없을 무
총 12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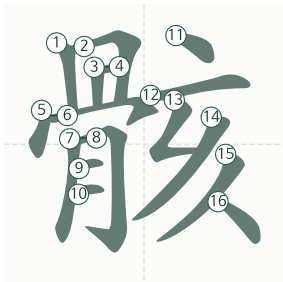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無/

心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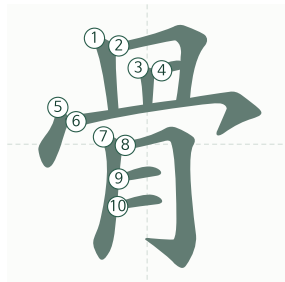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心/

骸 뜻·음 뼈 해
총 16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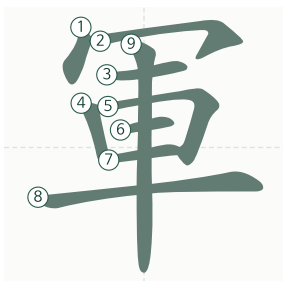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骸/

骨 뜻·음 뼈 골
총 10획 · 부수 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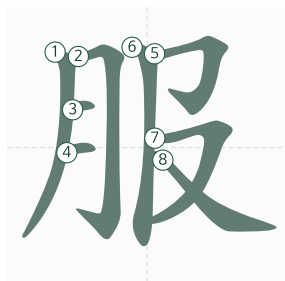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骨/

軍 뜻·음 군사 군
총 9획 · 부수 車

hanja.wordrow.kr/한자/軍/

服 뜻·음 옷 복
총 8획 · 부수 月

hanja.wordrow.kr/한자/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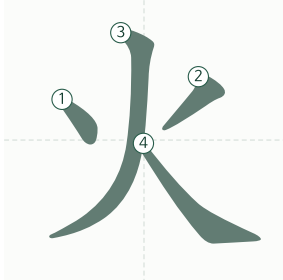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火

뜻·음 불 화
총 4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火/